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여수와 완도에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4.23 11:20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 농업인의 편의 극대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해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 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해 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여수·완도서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2:22 |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2:22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여수·완도서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025.04.22
ej7648@newspim.com

공사는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해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어촌公, 여수 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기사입력 2025-04-22 16:44:17

전남 본부,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농업인 편의 '극대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대한경제 호남취재본부=신종기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농지은행 119센터' 신규 운영을 통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종기 기자 1purema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신종기 기자

1pureman@naver.com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

농어촌공 전남본부, 여수와 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머니투데이 | 전남=나요안 기자

2025.04.22 11:4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211015969844&type=1>

기사주소 복사

▶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 제공...농지 관련 업무 일거 해결 가능



여수지사 '농지은행119센터'서 상담 중인 주민/사진제공=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 전남본부가 '농지은행 119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농업인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이달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 중이며, 다음 달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공사 전남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했다"며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도서지역 농업인 배려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 한민식 기자 | Ⓞ 승인 2025.04.22 15:47

여수 소라면·완도군 완도읍 총 2곳



찾아가는 농지은행119센터 여수지소.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 센터를 운영해 왔고 5월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민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여수·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로, 농업인의 편의 극대화

2025년 04월 22일 (화) 오후 06시 51분 13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하는 등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계약'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계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 119 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다. [사진= 전남본부]

그 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의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사는 4월부터 여주시 소라면에 매주 수요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관내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 onda88@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클리오늘] 농어촌공사 전남, 여수·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 이경재 기자 | ☎ 승인 2025.04.22 14:37

-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 농업인의 편의 극대화



▲ 찾아가는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사진=여수지소)/농어촌공사 전남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해 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kjlee5000@hanmail.net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여수와 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주동석 기자 | 승인 2025.04.22 10:05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농업인의 편의 극대화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해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농지은행119센터 [사진=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해 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겠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동석 기자 jds155@naver.com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여수·완도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농업인 편의 극대화

이정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4-22 11:59



찾아가는 농지은행119센터 여수지소./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농어촌공 전남, '농지은행 119센터' 신규 운영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4.22 10:41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 실시



여수 지소 농지은행 119센터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해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해 왔고 오는 5월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식 기자

농어촌공 전남, 여수와 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4.22 10:30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 농업인의 편의 극대화



찾아가는 농지은행119센터 운영(여수지소).[사진제공=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관 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전남, 여수·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찾아가는 농지은행 서비스, 농업인의 편의 극대화

김춘수 기자(=전남) | 2025.04.22. 10:14:3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해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전남본부가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해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남본부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5월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여수·완도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 김상규 기자 | Ⓞ 승인 2025.04.22 16:17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새로 여수와 완도에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은 여수지소 현장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금융경제신문=김상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신규 운영,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타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이달부터 여수시 소라면에서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해 왔다. 내달 7일부터는 추가로 완도군 완도읍에도 매주 수요일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완도에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지역 주민, 특히 섬주민들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농지은행 업무와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관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전남농협 본부장은 “원거리 민원인들이 농지은행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규 기자 ksg760918@kfenews.co.kr